



심 정 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한국 高分子學會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어엿한 成年이 되었으니 학회 창립에 일익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실로 감개 무량하다. 고분자 동호자들이 모여서 1976년에 학회 창립 총회를 가졌고 익년 1977년 5월 6-7일에는 제 1회 한국 고분자학회 춘계 정기총회 및 연구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회원수는 180여명, 연간 예산액 13,000,000원, 발표 논문 수는 22편 정도로서 모든 시작이 그러하듯 학회의 규모는 매우 영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전 회원들은 학회가 우리 나라 고분자 과학 및 기술의 求心點으로 빨리 土着化할 것을 염원하였으며 특히 역대 임직원들은 튼튼한 재정기반의 구축, 충실한 회지 및 연구지의 발간, 회원증대 및 지부 조직강화, 국제교류의 확대 등에 역점을 두었기에 학회는 눈부신 發展을 거듭하여 급일에 이르렀다. 1996년 춘계 정기총회 및 연구 발표회 때의 논문 발표수는 271편, 약 3천명의 회원, 연 예산액은 약 248,000,000원으로 1977년의 약 20배로 늘어났다. 이는 고분자 과학 및 기술이 바이오 産業에서 일렉트로닉스, 에너지 산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범위를 포함하는 最尖端 과학과 기술이라는 점과 회원 여러분의 동참 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한편 고분자 과학 및 기술의 국제 교류가 근간 매우 활발해졌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첫 국제 교류는 1979년 10월 서울에서 제 1회 한·일 공동 심포지움의 개최로 시작되었으며 兩國에서 번갈아 가며 매년 고분자 과학·기술에 관한 첨단 과제에 대하여 공동 심포지움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 1993년에 제 1차, 1995년에 제 2차 韓·中 공동심포지움을 가진 바 있다. 독일과도 1, 2차 韓·獨 공동 심포지움을 가진 바 있으며 금년 8월 4-9일에는 다 이는 바와 같이 규모가 큰 제 36회 IUPAC 국제 고분자 심포지움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내년에는 제 5회 Pacific Polymer Conference가 10월 26-30일에 경주에서 있을 예정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이 있다. 구지 설명하지 않아도 납득이 가는 말이다. 학문 연구에서 文獻調査는 필수적인데 이것이 바로 “지피지기”가 아니겠는가. 학회가 연구 발표회, 국제 심포지움 등을 갖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고 이런 모임은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본인은 우리 학회에도 재정 운영의 묘를 기하여 國際感覺에 예리한 상근 부회장을 두어서 국내는 물론 국제 학술 모임의 홍보, 유치, 基金造成, 회원들의 참가편의 도모 등을 전담케 하는 것도 학회가 도약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끝으로 학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 번 祈願합니다.